

# 6·10 민주항쟁기념식 ‘남영동 대공분실’에 올려퍼진 ‘광야에서’

### 문 대통령도 참석...“국가기념일로서 형태적 완성과 위상 확립 계기” 민갑룡, 현직 경찰청장 첫 기념식 참석...경찰의장대 의전·고인 예우 슬로건 ‘꽃이 피었다’...전태일 모친·박종철 부친·이한열 모친 서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권위주의 시대 고문과 인권 탄압의 현상이었던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 20주년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최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제30주년 기념식 이후 3년 만에 다시 기념식을 찾았다.

청와대는 “국가기념일로서의 형태적 완성과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석자 수를 70여명으로 대폭 줄여 간소하게

진행했다.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유족, 4부 요인, 주요 정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청장으로는 최초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87년 1월 고(故)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 끝에 숨진 곳이다.

경찰의장대는 이날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 등에 대한 훈장 추서 의전 등 전체 행사를 의전하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

이번 기념식의 슬로건은 ‘꽃이 피었다’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 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어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승리의 역사를 꽃으

로 표현했다.

청와대는 “6·10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경찰에게 장미꽃을 달아주며 폭력에 저항하던 의미와 6·10민주항쟁으로 활짝 핀 민주주의를 더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 5층 조사실과 무대를 꽃으로 구성하고, 행사 참석자들에게도 장미꽃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장 입장시 ‘어느 돌맹이의 외침’의 저자 유동우씨와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윤장수여자인 고 김진규 교수의 손자 김순영씨, 고 박형규 목사의 손녀 유미래씨 등 민주화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세대가 동반 입장했다.

기념식 사회는 배우 권해효씨와 이수민

아나운서가 맡았다. 권씨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 콘서트, 호주제 철폐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해 왔다. 권씨는 2009년과 2018년에 이어 세번째 6·10민주항쟁 기념식 사회를 맡았다. 이수민 아나운서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교육방송국(YBS) 소속으로 고 이한열 열사 투병 상황 및 고내시위 등을 직접 방송했다.

목담사는 한승원 작가가 창조적인 자유 민주 평화의 꽃과 달과 별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성스럽고 위대한 약속과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목담사를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낭송했다.

또한 2012년 개봉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원상씨가 경과보고를,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가 민주화운동 관계자를 대표해 ‘서른 세번째 6월 10일에 보내는 편지’를 낭송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 △박종철 열사의 부친 고 박정기 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이사장 △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회장 △고 조영래 전 시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아울러 해금 연주자 강은일과 가수 윤선애의 ‘그날이 오면’, 가수 정태춘의 ‘92년 정마 종로에서’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가수 윤선애는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소속으로 6월 민주항쟁에 직접 참여했고, 이후 박종철 열사의 추모곡이 된 ‘그날이 오면’을 최초로 녹음한 인연이 있다. 정태춘은 1980년대부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최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10년 넘게 고정출연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광야에서’를 합창했다. 이 곡은 6·10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부터 참석자들이 기념식 마지막에 부른 노래다. 행정안전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공식 제작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악인 송소희, 가수 안예은, 국립합창단, 청춘뮤지컬 ‘비망’ 프로젝트팀이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불렀다.



이희호 여사 추도식...‘범여권 인사 한자리에’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반도 정세와 평화 프로세스’ 토론회 北 강경 기조...“韓 정부에 대한 불만 쌓인 것”

북한이 남북 연락·통신 채널을 차단하고 대남 정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대남 기조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2~3년간 한국 정부에 대한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0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 퀸 룸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정세와 프로세스’ 통일연구원(KINU)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통해 남북이 본질적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에 합의는 했지만, 지난 2년 간 한국 정부가 이와 가까운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북한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이 국제사회나 미국을 설득하거나 남북협력에 주도적으로 나서길 바랬지만,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개정안

광주 동남갑 운영덕 대표발의



를 제외하고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즉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운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광주 동남갑)는 21대 국회 첫 발의 법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법안 중 하나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에는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